

화순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개소

263억원 들여 백신산업특구에
품질시험 등 86종 480대 장비
백신 개발·허가·승인·제품화지원

화순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화순백신산업특구에서 개발부터 허가·승인까지 단계별 백신 제품화 기술을 지원하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이하 백신센터) 개소식이 화순백신산업특구에서 열렸다.

백신센터는 2020년 6월 설립된 식약처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국산 백신개발과 허가·승인까지 제품화 기술을 지원한다. 백신센터는 ▲백신 임상시험 검체 분석 ▲백신 품질검사 ▲백신 생산용 세포주 분양·관리 ▲1:1 맞춤형 제품화 컨설팅 ▲국내외 백신 개발 동향 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한다.

화순군은 화순백신산업특구에 신축한 백신센터가 백신 제품화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국내 백신 개발이 활발해지고 화순이 바이오-메디컬 거점으로 입지를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와 전남도, 화순군이 2019년부터 국비 193억원, 지방비 70억원 총 263억원을 들여 지난 10월 준공한 백신센터 본부동은 지상 2층, 연면적 3970㎡ 규모다. 본부동에는 임상시험검체를 분석하고 품질시험 등이 가능한 86종 480대의 장비를 갖췄다.

백신센터는 실습이 가능한 전문교육 시설을 구



지난 10일 화순백신산업특구에서 열린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개소식에 관계자들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진행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축해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산 백신의 해외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본부동 옆에 들어설 지상 3층, 연면적 4800㎡ 교육동은 내년 완공 예정이다.

교육동이 완공되면 WHO, 미국 FDA, 유럽 EMA 등의 백신 인허가를 지원해 국내 백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선도할 계획이다.

화순백신산업특구에는 ▲연구개발(전남도 의대) ▲전임상시험(KTR) ▲임상시험(화순전남대병원) ▲제품생산(GC녹십자 화순공장, 생물의약품연구소,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천연물의약품원료 대량생산시설) 등 '바이오신약 전주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화순백신산업특구에서 제품 허가·승인을 지원하는 백신센터가 개소하면서 화순이 바이오-메디컬 거점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됐다.

백신센터 개소식에는 구복규 화순군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박성호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사무국장, 박정태 한국규제과학센터장, 임지락·류기준 전남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백신센터가 국산 백신의 안정적 공급과 자급률 향상 등에 이바지하고 화순이 명실상부한 바이오-메디컬 거점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화순백신산업특구의 인프라를 계속 확충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해 화순이 글로벌 백신-바이오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목포해수청, 진도 동거차도 간출암 등표 설치

창유~서거차 운항여건 개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이 선박 안전항해를 위해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리 인근 해역 수중암초에 동거차도등표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표는 암초 상이나 수심이 얕은 곳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이다.

국비 8억4000만원을 들여 지름 6.5m, 높이 17.5m 규모로 제작한 인공구조물이다.

항해하는 선박이 등표의 우측으로 운항하도록 안내하는 녹색 등표다.

등표가 설치된 해역은 동거차도와 서거차도 사이에 위치해 유속이 빠르고 만조 시 암초가 보이지 않아 선박의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해서 제기된 곳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해양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 안전한 바닷길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소방관 아저씨 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소방, 유치원생들 편지 받아

영광유치원 원아들이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달했다.

영광소방서는 영광대교회 영광유치원 원아들과 교사들이 지난 9일 '제60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감사한 마음을 담은 응원 편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영광대교회 영광유치원은 한국119청소년단 영광지회 소속 단원으로 평소에도 소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소방안전체험에도 참여하는 등

119청소년단(유치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아이들이 전한 감사편지에는 "불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내용들이 정성 가득한 글씨로 쓰였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소방관들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 전달했다.

최동수 소방서장은 "아이들의 마음을 담은 편지에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열차타고 담양으로 놀러오세요”

코레일과 '담양아트투어' 운영

"기차타고 떠나는 담양 여행" 담양군은 11월 한 달 간 코레일 광주여행센터와 함께 1박 2일간 담양의 문화공간을 둘러보는 '담양아트투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담양 아트투어는 코레일 열차를 타고 광주 송정역에서 내려 렌터카를 타고 담양으로 이동하여 담양의 다양한 문화공간과 관광지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이색 관광상품이다.

11월 단풍철 기간 운영(월-목요일)되는 아트투어는 ▲달라이트 담양 ▲다미담예술구 ▲담양LP 음악충전소 ▲해동문화예술촌 ▲죽원 ▲창평솔로시티 등 담양의 유명관광지에 더해 새로운 문화관광지를 둘러보도록 구성됐다.

'달라이트 담양'은 제주도, 여수 등 주요 관광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 대나무 숲, 용소 폭포, 메타세쿼이아랜드 등 담양을 소재로 한 11개의 미디어아트 전시관과 카페가 있는 담양의 새로운 명소이다.

'담양 LP음악충전소'는 광주MBC가 소장한 오

리지널 LP 1만3000여 장과 CD 5000장 등의 전시와 다양한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음악의 변천사를 살펴 볼 수 있는 공간과 직접 LP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체험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다.

'담주 다미담 예술구'는 지역의 역사적 공간을 재현해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 시킨 곳이며, '해동문화예술촌'은 옛 주조장을 지역문화 활동기와 함께 조성한 창의성, 공공성을 갖춘 문화복합공간으로서 전시와 공연이 활발히 열리고 있다.

담양아트투어 최소 이용 인원은 2인 이상으로 1인 기준 참가비는 용산역 출발 6만6800원이며 열차별 할인율, 승차역에 따라 여행경비는 달라진다. 상품에는 KTX 왕복열차비, 숙박비(1박), 달라이트 담양 관람권 1매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담양아트투어는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또는 광주 송정역 여행센터(062-942-3376)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가을꽃 보러... 10월 한달 77만명 장성 황룡강 찾았다

꽃축제 이후에도 발길 이어져
군 "지역경제 연계성 강화"

알록달록 피어난 수 십억 송이 장성 황룡강을 찾은 관광객이 10월 한달 간 77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는 백일홍과 천일홍, 코스모스 등 강변을 장식한 다채로운 꽃들과 아름다운 야경을 선사한 플라워터널 조명시설이 큰 호응을 얻었다. 저녁마다 열린 달빛 콘서트, 수상체험 문(moon) 보트, 장성 맛집이 총출동한 향토식당 등 풍성하게 마련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도 흥행 요소였다.

군에 따르면 축제와 나들이객 맞이기간에 42만 5000명의 발길이 황룡강으로 몰렸다. 축제 전후로 황룡강을 찾은 인파까지 합산하면 10월 방문객 수가 약 7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 관계자는 "백양단풍축제(1만 5000명), 울봄 흥(洪)길동무 꽃길축제(32만 7000명)까지



지난 10월 열린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를 찾은 관광객들. <장성군 제공>

더하면 한 해 동안 장성군 축제에 100만 명이 다녀갔다"며 "수준 높은 콘텐츠를 갖춰 방문수요를 확대해가겠으며, 지역경제와의 연계성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장성군은 걷기 코스로 사랑받고 있는 황룡강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장성 필암서원을 연

계하는 '청림으로 가는 소나무 가로숲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황룡강, 필암서원, 아곡 박수량 백비를 걷기길로 연결해 '문불여장성' 선비문화를 널리 알리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장성=김영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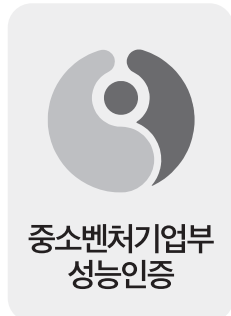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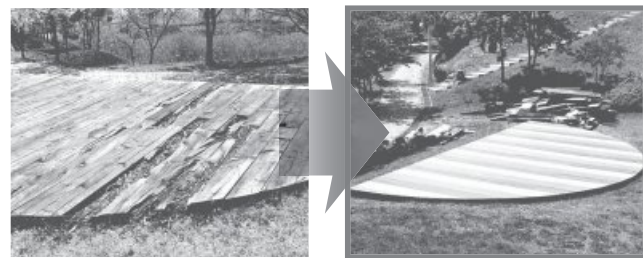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